

생물다양성 풍부한 38.8km² 국가가 보호

여수 갯벌 국내 18번째 보호지역 지정
멸종위기1·2급 생물 5종 이상 서식
2년간 생태계 조사·설명회 등 거쳐
건축물·공작물 신·증축 행위 제한



국내 18번째 습지보호지역으로 최근 지정된 여수 갯벌 전경. <여수시 제공>

멸종위기 바닷새들의 서식지인 여수 갯벌이 국내 18번째 습지보호지역으로 최근 지정됐다. 해양수산부는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인 노랑부리백로와 저어새,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인 흰발농게·대추귀고둥·기수갈고둥 등 해양보호생물 5종 이상의 서식지이며,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여수시 여수만 일대 갯벌인 여수 갯벌(약 38.81km²)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여수 갯벌의 우수한 생태자원 가치를 국가적으로 인정받게 됐으며, 나아가 고흥-보성-순천에 이르는 여수만 갯벌을 하나의 연결된 습지보호지역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게 됐다. 또 여수 갯벌은 무안(2001년 12월28일), 진도(2002년 12월28일), 순천(2003년 12월31일), 신안(2018년 9월3일), 별교(2020년 12월31일), 고흥(2022년 12월29일)에 이어 도내에서 7번째이며, 전국에서는 18번째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은 해수부와 여수시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의를 통해 이뤄졌다. 해수부와 여수시는 지난 2022년 7월 후보지 발굴 협의를 시작으로 조사연구 용역과 생태계 조

사, 지역주민 설명회, 지정도면 의견조화와 관계 기관 협의 등을 거쳐 마침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앞으로 해수부와 전남도는 체계적 보전·관리 계획 수립해 시행하고, 여수시는 환경개선이 용개선·주민지원·일자리 창출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한편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여수 갯벌을 포함해 습지보호지역 18곳,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6곳, 해양생물보호구역 2곳, 해양경관보호구역 1곳 등 총 37 곳이다. /여수=김창중 기자 ejkim@kwangju.co.kr

고흥군 더 풍부한 정보 담아 관광 가이드북 리뉴얼 발간

고흥군이 아름다운 관광지에 대한 더욱 풍부한 정보를 담은 관광 가이드북을 새롭게 발간했다. <사진> 개정판은 기존의 일방적 정보제공 위주에서 벗어나 여행자들의 다양한 요구와 취향을 반영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여행을 떠나기 전 참고할 수 있는 권역별 추천코스, 내가 찐 여행코스, 전망 좋은 곳, 축제 행사, 민간 정원, 상세한 교통정보 등 고흥 여행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로 구성돼 있다. 관광 가이드북 수령을 원하는 누구나 군청 관광정책실로 방문하거나 담당자에게 등기 발송을 요청하면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



구례군 '가족 소통 up 힐링캠프' 참가자들이 행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구례군 제공>

구례군 1박2일 '가족 소통 up 힐링캠프' 성료

구례군은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1박 2일간 구례교육지원청 Wee센터와 협력해 '가족 소통 up 힐링캠프'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지역사회의 두 기관인 구례군정신건강복지센터와 구례교육지원청 Wee센터가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발달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개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역 초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함께 모여 소통하고 힐링함으로써 가족 간의 다양한 교류와 긍정적 상호작용을 증진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캠프는 ▲가족 소통 향상을 위한 역할극 프로그램 ▲가족과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 ▲동물 마스크팩으로 가족이 하나 되기 ▲아로마오일 가족 향기 만들기(향수, 핸드크림) 프로그램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역할극 프로그램에서는 자녀·부모 역할 바꾸기를 통해 주어진 상황을 연기해 보고, 서로의 처지를 이해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며, 동시에 상대를 존중하면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나 전달법' 대화 방법을 실습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순천시, 농촌 보건의료기관 환경 개선 박차 창촌보건진료소 신축하고 신전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순천시가 농촌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후화된 보건진료소의 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순천시는 지난해 공모에 선정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주암면 창촌보건진료소는 신축하고, 낙안면 신전보건진료소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등 쾌적한 의료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비를 포함한 총 9억 4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오는 8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특히 주암면 창촌보건진료소는 7억 8600만원을 투입해 11월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낙안면 신전보건진료소는 벽체와 지붕의 단열, 이중창호 설치, LED 조명 교체 등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 성능을 20~30% 향상하고 냉난방비를 절감할 계획이다. 순천시는 올해도 국비 3억 2700만원을 추가 확보했다. 승주읍, 해동면, 황전면 등 3곳의 보건진료기관 개선 사업을 내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지난 7월에는 5개 보건진료소에 치과 방사선 디지털센서, 이동식 치과 방사선 촬영기, 백신 보관용 냉장고 등 최신 의료장비를 대폭 개선 확충해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지역 보건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모든 시민이 양질의 보건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순천형 지역안전형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내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의료 취약지역의 보건 의료 격차를 해소하여 시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정인화(오른쪽) 광양시장이 지난 26일 기획재정부를 찾아 내년도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광양시 내년도 국비 6884억원 지원 건의

정인화 시장 기재부 찾아
정인화 광양시장이 기획재정부를 찾아 내년도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광양시에 따르면 정부예산 심의 기간에 맞춰 기획재정부를 방문한 정 시장은 연구개발예산과장 등을 직접 만나 사업 타당성을 설명하고 주요 현안 사업 5건 6884억 원의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주요 사업은 ▲공립 광양 소재전문과학관 건립(400억원) ▲광양항~울촌산단 연결도로 개설(3118억원) ▲보훈회관 건립(48억원) ▲광양(IV) 공업용수도 공급(3024억원) ▲중소벤처기업 전문연수원 건립(294억원) 등 5건이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정부의 긴급재정으로 내년도 예산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발로 뛰는 행정을 계속하겠다"며 "국회, 중앙부처 등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 시장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매월 3만원 기부...곡성 착한가게 12곳 가입

곡성군은 최근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착한가게 단체 가입식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착한가게 캠페인에서 신규로 12개소가 착한가게로 참여하면서 군내 총 30개소의 착한가게가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착한가게로 참여하면 매월 3만원 이상의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기부하게 된다. 신규로 가입한 착한가게는 ▲가랑드(대표 노계숙) ▲곡성농협 하나마트(대표 김완술) ▲곡성축협 순한한우명품관(대표 정희수) ▲롯데리아 전남곡성점(대표 안영미) ▲보건약국(대표 조종훈) ▲우과고속철물(대표 허화중) ▲EDIYA곡성점(대표 노윤아) ▲중화요리왕제(대표 남만우) ▲초원식당(대표 이재혁) ▲cafe마루(대표 강소영) ▲하송(대표 조세원) ▲함지박식당(대표 조유정) 등 12개소다. /곡성=김대성 기자 bigkim@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